

태고종 수계산림 이색 출가자들

퇴임교장·공무원·연극인도 '초등생' 보현 스님 단연 화제

지난 10월 27일 264명의 사미(니)를 탄생시킨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은 시작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0월1일 입제식에 앞서 수계산림 지원자는 304명에 이르렀다. 소양시협과 4구간의 교육에서 40명이 탈락하고 남향자 192명, 여행자 72명이 최종적으로 계를 받았다. 이는 태고종 사상 최대규모로 10년 전 50여명의 6배, 지난해 173명에 비해 100여명이 늘어난 인원이었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종단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현 스님은 대를 이어 출가하는 '태고종 2, 3세 스님들'이 많아졌고, 종단구성을 4부중에서 6부중으로 바꾸어 결혼한 수행자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 주요하다는 분석이다. 태고종단의 올 수계식은 여느 수계식에 비해 축제분위기가였다. 1000여명의 가족과 은사가 찾아와 '인연(人天)의 스승이 된 것'을 축하했다.

28기 수계산림에서 단연 주목을 받았던 수행자는 동진 출가한 보현(11·초교4년)스님. 서울출신인 보현 스님은 어려서부터 동네 웅공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5년 전부터 '스님이 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조르다가 이번이 계

'태고종 2·3세 스님' 급증 기혼 수행자 정체성 제고 제기

를 받았다. 수계식후 어머니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은 보현 스님은 "공부 잡해서 훌륭한 스님이 되겠다"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도립 스님(60)은 경주와 구미지역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다 정년퇴직을 2년 앞둔 지난 7월 퇴임하고 수계산림에 들어왔다. 도립 스님은 "40여년간 교단에 몸담고 있으면서 진정한 사람됨을 갈구해왔다"며 "지난해 KBS 사장을 역임한 지연 스님 출가소식에 자식들도 제갈 길을 가고 있고, 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세면도구만 들고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1969년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전매청, 전남대 등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정성 스님(68)은 "다음 생애에 출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자녀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출가분하게 출가하게 했다"고 말했다.

'15대 품바' 등 배우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던 윤영 스님(31)도 "출가인연이 있었는지 어려서부터 스님 흉내를 많이 내곤했다"며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며 자비행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봉 스님(49)은 경복의대를 졸업한 후 20여년간 병원 원장으로 의술을 펴왔으며 도성 스님(43)은 문화재청 석조각부분 지정문화재이다.

선암사·이준엽 기자

16국사 700년만의 나들이

송광사 6~7일, 진영 이운 및 헌공다례 봉행

송보종찰 송광사 16국사가 700년만의 나들이를 한다.

송광사주지 영조는 11월6~7일 송광사 일원에서 '제1회 송광사 불교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국사전(국보 56호)에 봉안된 16국사 진영을 이운, 헌공다례의식을 봉행한다.

16국사 진영이 일주문 밖으로 나오기는 국사전 건립(1369)이후 처음으로 6일 이운의식에는 사중스님 100여명과 신도 1000여명이 참여한다.

16국사 진영은 송광사를 상징하는 목조삼존불감(국보 42호)과 함께 사부대중의 장엄 속에 국사전에서 송광정까지 1km에 걸쳐 이운된다.

송광사는 국사전영 이운에 이어 헌공다례를 올리고 '중생의 마음이 부처마음'이란 주제의 본격적인 불교문화축제를 시작한다.

문화마당으로 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국사전영 이운에 이어 헌공다례를 올리고 '중생의 마음이 부처마음'이란 주제의 본격적인 불교문화축제를 시작한다.

사자루에서는 전통등연구회가 제작한 각양각색의 전통등 60여점이 전시되며, 송광사의 과거와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에는 160여점의 옛 송광사 사진이 공개된다. 이밖에 산사음악회에서는 국악실내악단 '도드리', 타악그룹 '땅의소리'와 가수 안치환, 김원중 씨가 출연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6국사 진영을 모시고 송광사 경내를 돌아보는 의식을 통해 한국불교를 굳게 세운 선사들의 정신을 되새겨보고자 한다"며 불교문화축제의 의의를 소개했다.

제1회 불교문화축제... 삼존불감도 공개 선사 유물특별전·옛 사진전 등 마련

'16국사 및 선사 유물특별전'에는 국사전영과 보조스님의 유품인 목조삼존불감, 목욕신발인 '목욕혜' 등 진품이 일반에 선보인다. 또한 송광사 근세의 선지식 효봉, 구산 스님의 유품과 북한 지수 영정이 함께 전시된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홍천 천축사

"만다라 도량으로 바꾸어"



홍천 천축사는 만다라성지로 변모하는 불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법륜사 불미미술관에서 열린 만다라 전시회의 개막 테이프 커팅 모습.

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의미의 칼라차크라 만다라(Kalacakra Mandala). 세계불교의 급속한 유입으로 대중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 만다라를 전시·봉안하는 사찰이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리리에 들어선다. 내년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해 개원하는 금학산 천축사주지 동회가 바로 그 곳이다.

천축사는 2천여 평의 대지에 총 8동의 법당과 요사로 구성된 전통사찰로, 주지 동휘 스님의 원력에 힘입어 만다라 도량으로 변모하는 작업이 한창이

생각으로 삶을 관조하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배울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 곧 만다라 수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휘 스님은 만다라가 티베트불교의 아류 또는 한국불교와는 맞지 않는 밀교로 격하되는 것을 경계한다. 세계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티베트불교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이방의 불교라는 이유로 무조건 외면당할 때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만다라 도량을 건립하겠다는 서원도 이 같은 현실을 넘어보겠다는 각오에서 비롯됐다.

전시회·산사축제 열고 성지건립 구체화 기념관 건립·홍보 등 티베트 알리기 노력

다. 이 작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다라 문화원(원장 동휘)을 중심으로 만다라를 봉안하는 기념관 건립과 수행프로그램 연구, 각종 홍보 기획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1주일간 열린 만다라 산사축제와 매월 1회 열리는 만다라 수행 등은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만다라를 대표하는 성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주지 동휘 스님의 포부다.

15년째 만다라 수행 보급에 힘써 온 동휘 스님은 "새 세상을 여는 주체로서 나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바뀌게 된다"며 "만다라를 통해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라

서원의 구체화는 만다라를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여는 일로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사간동 법륜사 불미미술관에서 '깨달음의 눈-나처럼 보라'를 주제로 만다라 전시회를 연데 이어 올해 5월 청주 화강사에서 2차 전시회를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동휘 스님의 만다라 성지 건립계획은 이렇게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도량에 들어서서 순간 만다라 성전에 들어서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가르침을 담은 만다라가 현실화되는 거죠."

박봉영 기자



"사부대중 화합 통해 거듭나라"

해초 종정 선암사 주석

태고종 제17회 종정 해초 스님이 태고총림 선암사에 주석한다.

해초 스님은 10월25일 종정이윤의식과 함께 '해초 종정 대중사 주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해초 스님은 "태고총림 선암사에 종정으로 방부를 들인다"며 "한국불교 전통을 이어가는 선암사를 중심으로 수행중풍과 승풍을 진작시키자"고

말했다.

종정 주석법회에 앞서 선암사 대중 300여명은 부도전에서 해초 스님을 영접하고 대중전까지 '종정이윤'의 의식을 진행했다.

이어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의 안내로 조사전, 칠전선원을 참배하고 무우전에 마련된 종정원에서 대중스님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해초 스님은 사부대중의 화합을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무각사, 주한외교관 템플스테이



남도문화 체험 과 프로그램을 방문한 주한 외교사절단이 10월 23~24일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했다(사진).

이번 행사에는 스위스, 브라질, 뉴질랜드 등 15개국 주한외교 대사와 가족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무각사가 마련한 '새벽예불' '스님과의 대화' '산사견기' '참선과 요가' 등 사찰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했다.

또 주지 광민 스님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진지한 시간도 가졌다.

미황사, '달마법종' 타종식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10월23일 제5회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주제는 '별이랑 달이랑 사람이랑'.

음악회는 창건 서사시를 시작으로 전 범규제의 창작곡 '미황사의 새벽', '미황사의 바다'가 퍼져나갔다. 여기에 지역 민들이 직접 공연하는 남도소리, 농요, 색소폰, 우리춤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대홍사 조실 천운스님, 주지 몽산 스님 등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500권의 달마법종 타종식과 미황사 괘불(보물 1242호)을 봉안하고 법문을 들은 폐불제가 열렸다(사진). 이준엽 기자

'한마음으로 포교·복지 앞장'

광주 동구 지역 사찰들의 연합체인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지각 스님)가 창립했다.

10월 27일 무등산 동원사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는 양현일 국회의원, 유태평 동구청장 등 지역기관장과 관내 30여개 사암 주지스님, 신도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초대회장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은 인사말에서 "국가행정이 지방자치체로 바뀌고 있는 이때 지역, 계층간의 포교와 불교발전을 위해 지역사찰들의 연합활동이 요구된다"며 "지역불자들이 하나되어 포교는 물론 대사회복지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각 스님은 해미(동곡사), 원명(학림사), 해우 스님(해룡사) 등 관내 원불(보물 1242호)을 봉안하고 법문을 들은 폐불제가 열렸다(사진). 이준엽 기자

전생, 사주팔자, 빙의 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四柱八字)는 빙의(憑依)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는 강의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금번 15차 최면-전생, 빙의 워크샵을 통해 그 신비스러운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본 교육내용은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안내자료와 자료 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발송비 5000원)

빙의 치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빙의 진단법 → 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검진 방지 치유법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 대화를 통한 원격제압 천도법 사례 중심의 시청각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
전생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 명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빙의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형사, 약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경계재요"..... 전생에 남자를 많이 만난 여자는 이생에서 내 남편 하나 없는 기생, 소실 팔자이니 이런 사주 "관살태왕자요"..... 최면학 총론, 최면의 원리와 이해,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명상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 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 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빙의장애현상 빙의된 사람의 경우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심성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지 절벽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야 한다.

정통 명리학 30여년 동안 많은 역학자를 배출한 고은(高恩) 이화정 선생 직접 강의!!
 故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을 바탕으로 "생극제화"의 원리를 아주 쉽게 지도하여 초보자라도 명쾌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육과정 및 일정 각 과별별 교재 및 실습 테일 제공

과정명	교육비	교육시간
최면-빙의치유·명리학 과정	100만원	총 48시간
최면-전생·빙의·명리학 과정	200만원	총 63시간

♣11월 15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전10시~오후8시까지) 7회 과정



특 전 이수증 수여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출장강의 가능)
 [기타문의] 초청 강연 및 개인문제 상담 별도 문의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大野 仁 재 형 상담학 박사
 한국생활최면심리학회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SBS백만불 미스터리, V,세상속으로,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
 대전역에서 택시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